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510장 ..... 다같이

1.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2.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무리 많구나
3.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취라 빛을 찾아 해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후렴) 우리 작은 불을 꺼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해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 기 도 ..... 가족 중

### 성경봉독 ..... 마태복음 15:21-28 ..... 인도자

### 설 교 ..... “부스러기의 능력” ..... 인도자

###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1.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2.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3.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부스러기의 능력

마태복음 15:21-28

캠벨 모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비유는 가르침이 있는 기적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은 가르침을 위한 비유”라고 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 즉 사르밧에 찾아가셨을 때 벌어졌다. 이방 여인 즉 헬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아와서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호소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술이나 마약에 취한 자녀, 게임이나 미디어나 도박에 중독된 자녀, 통제나 제어가 안 되는 자녀, 반항적인 자녀, 성적으로 타락한 자녀, 향락적이고 세속적인 자녀, 학교 폭력이나 범죄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녀다. 여인인 체면 볼 것 없이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언해도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면서 여자를 거부하심을 드러내셨다. 급기야 여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절을 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심한 표현을 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발언이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인종적, 사회적, 종교적 우월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멸시 의식을 대변하는 말이다. 이에 여인은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포기하고 비방할 만했다. 그러나 이것이고비다. 기적은 시험을 넘어서야 나타난다.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런 말을 못 한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 드디어 예수님은 그를 개가 아니라, “여자여”라는 경칭으로 불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하셨다. 그 결과 그의 딸이 즉시로 낫게 되었다. 그 딸이 치료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소원들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 ► 이 여인은 부스러기 믿음을 갖고 있었다. 비록 자신은 이방인으로서 자격 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내세울 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크신 권능과 긍휼하신 은혜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부스러기의 능력을 믿는 기도다. 우리에게는 부스러기의 능력이 필요하다. ‘부스러기’라고 하지만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넉넉하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의 힘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작은 한 조각만 가지고도, 우리 딸을 고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믿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풍자적으로 듣고 여유 있게 응수하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었다. 즉 여인은 예수님의 풍자적 발언에 골계적으로 응수했다. 우리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여 논쟁에는 이기고 관계는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자녀나 개냐’라는 양자택일을, ‘자녀도 개도’라고 상반되는 것을 결합하면 특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개도 귀해진다. ‘그래요, 저는 강아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녀들이 먹고 상에서 떨어진 남은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개의 천박하고 죄인이라는 이미지는 자기 겸비의 긍정적 이미지로 바뀐다. ‘이 말 때문에’ 여인은 딸이 병 고침을 받았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 한 조각의 은혜가 강아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면 한 덩어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겠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부스러기 한 조각을 붙들고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될 때까지 끈기 있게 믿었던 사람들이다.